

# 광주 軍공항 이전 급물살 타나 민간공항 무안이전 양측 ‘한뜻’

광주시-전남도 합의 급물살  
이전 예정지 주민 설득이 ‘관건’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취임 하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이 ‘조건 없는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하자 전남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전향적 의지를 갖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했다.

이에 전남도 민선 7기 취임준비기획단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건없는 이전을 발표한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화를 위한 주춧돌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전남도가 먼저 요구하기 힘든 민간공항 이전 조건을 광주시가 제시하면서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문제를 외면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취임 전부터 일단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 조직



광주 도심에 비행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개편안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규모의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에서 군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기존 군공항이전사업단의 3개 계에 인원 14명이던 규모를 2개 과 인원 35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이 시장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절실했지만, 군 공항과 연계돼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여차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선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무안공항 이전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진 데다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에도 전향적 생각을 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기존 생각의 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후보 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전 예정 후보지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에 합의하더라도 이전 후보지 주민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방부와 함께 이전 후보지 주민을 설득할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8월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참여하는 민선 7기 첫 번째 광주·전남 상생협의회가 주목된다. /광주·전남 무안=김남중·봉채영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52시간 유연근무제 도입

###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89%’ 시행

대기업·중소기업 도입률 ‘21.9%’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모두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12개 기관(비공시 대상 3개 기관 제외)이 모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근무제를 시행(2017년 기준)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2016년 기준)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제·선택 근무제·재택 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이 해당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은 탄

력근무제도 종류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관리업무가 집중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하게 한국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원격근무제인 ‘스마트 워크근무형’을 선택한 직원이 190여명으로 탄력근무제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부 예산집행 업무가 많아 국회 등 수도권 지역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하고는 ‘집약 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을 활용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빛가람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몇 해 전부터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다만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함평군 재배기술 등 여름철 영농교육 성황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9개 읍·면 90개소에서 농업인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8일 밝혔다.

마을단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제(PLS),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요 시책을 작목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대추연구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간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의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대추의 여름철 관리요령,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의 교육도 진행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했다.

교육에 이어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일문일답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함평군

형식으로 주고받으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향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토양경정, 농산물안전성 분석, 유용미생물공급,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이용해 농업 기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근 기자 ysn6313@

#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홍보해주세요”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실시  
수영장 방문·대회현장 체험 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대회 붐업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년 기념행사일에 맞춰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전국의 유명 파워블로거와 뉴미디어 기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팸투어단은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해 대회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제는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D-1년 기념행사에 참석 내년에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대회 붐업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뉴스IS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환벽당, 소쇄원 등을 둘러보고 맛집 탐방을 통해 개최도시 광주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조직위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극 홍보할 목적으로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대회준비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행사에 참가한 파워블로거 한 분 한 분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5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지역에 위치한 한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

점에는 학습 환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선정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았던 삼형제를 위해 새 책상과 의자, 학습용 컴퓨터를 준비하여 공부방을 꾸며주었다. /광주=봉채영 기자



## 집중호우 침수피해 개선사업비 34억 확보

광주시,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선정

광주광역시와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분량지구가 배수개선사업 2018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에 대해 배수로정비 및 배수장 등을 설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송산지구(242ha, 2010년 준공), 양산지구(102ha, 2016년 준공), 화장지구(345ha, 2017년 준공)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와산지구(51ha, 2018년 준공 예정), 오산지구(53ha, 2019년 준공 예정)를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분량지구는 신규지구 지정과 함께 교부된 국비 1억500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

부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지구 지정을 받기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하다.

이에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농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 조정제)에 주민이 참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신규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지구로 광산구 지정체가 확정돼 국비 7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분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조건이 개선된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